

'봄배구 무산' 페퍼스, 탈꼴찌·최다승 경신 위안



IBK기업은행에 1-3패...PO 문턱 좌절
조이 22점 분전에도 범실 28개에 발목

페퍼스측은 IBK기업은행의 봄배구 도전이 끝내 무산됐다.

창단 이후 최고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끝내 플레이오프 문턱을 넘지 못하며 '탈꼴찌' 성과에 만족하게 됐다.

페퍼스는 지난 25일 화성종합철강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첫 경기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에 세트스코어 1-3 (16-25 25-18 17-25 15-25)으로 패했다.

이날 기업은행은 빅토리아가 무릎 통증으로 교체되는 등 외국인 공격수들이 줄부상으로 빠진 채 국내 선수 위주로 경기를 치러야 했다.

페퍼스가 높이와 화력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였지만, 이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조이는 이날 22점으로 홀로 분전했고 시마무라가 10점을 보였다. 하혜진, 이한비가 각각 6점을 기록했으나 팀 범실이 28개에 달하며 스스로 흐름을 끊었다.

1세트는 16-25로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한 페퍼스는 2세트에서 조직적인 블로킹과 공격 집중력을 앞세워 25-18로 반격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세트가 분수령이었다.

페퍼스는 세트 중반까지 접전을 이어갔으나, 리시브 불안이 다시 반복됐다.

한 번 흐름이 넘어가자 범실이 이어졌고 오픈 공격 범실, 연결과 수비 실패가 겹치며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흐름을 내준 페퍼스는 4세트에서 상대의 강한 서브에 고전하며 초반부터 점수 차가 벌어졌다. 작전 타임 이후에도 분위기를 뒤집지 못한 채 15-25로 경기를 내줬다.

이날 페퍼스는 경기 내내 수비 불안을 드러냈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세트의 공격 선택 폭이 줄어들며 공격 역시 조이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예측 가능한 패턴이 반복됐다.

공격 성공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공격 효율은 페퍼스가 11.11%에 그치면서 기업은행(25.76%)에 크게 뒤졌다. 리시브 효율 역시 페퍼스가 17.24%, 기업은행이 31.82%로 격차가 컸다.

중요한 고비마다 범실이 나오는 등 세트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도 밀렸다.

이날의 패배로 페퍼스의 봄배구 진출 경우의 수는 사라졌다. 그럼에도 이번 시즌 보여준 성장세는 다음 시즌 도약 가능성을 남겼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3월 1일 오후 4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의 맞대결을 통해 구단 최다승 경신에 다시 도전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시페퍼스가 지난 25일 화성종합철강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진 뒤 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도열해 있다. (KOVO 제공)

프로배구 아시아 쿼터, 봄배구 운명 가른다

부상·맹활약에 희비...막판 순위 싸움 최대 변수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활약이 봄배구 티켓 다툼에 변수로 떠올랐다.

V리그 팀별로 2025-2026시즌 정규리그 종료에 5-6경기만을 남긴 가운데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거나 부상 약재를 만나면서 막판 순위 다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4일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마지막 6라운드 대결은 아시아 쿼터 선수의 활약에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

외국인 주포 레티치야 모바 바스코(등록명 모바), 토종 공격수 강소희와 도로공사의 막강 삼각편대를 형성한 아시아 쿼터 타나차 쑤삭(등록명 타나차)이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타나차가 5세트 2-2 상황에서 블로킹 후 착지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다쳐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도로공사는 결국 패배를 당했다.

반면 현대건설의 아시아 쿼터 자스티스 아우치(등록명 자스티스)가 19점을 사냥하는 등 최근 4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7.3점을 뽑으며 소속팀의

5연승 행진에 앞장섰다.

2위 현대건설은 승점 58(20승 11패)을 기록, 도로공사(승점 60·21승 10패)를 승점 2차로 바짝 추격 중이다.

도로공사는 타나차가 발목 인대 파열로 4-6주 진단을 받으면서 전력 손실이 생겼다.

3위 흥국생명(승점 53)은 정규리그 1위 희망을 버리지 않은 가운데 아시아 쿼터 아날레스 피치(등록명 피치)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남은 경기에서 피치가 제 몫을 해줘야 흥국생명으로서 선두권 추격에 힘을 낼 전망이다.

4위 IBK기업은행(승점 47)은 아시아 쿼터 알리사 킨켈라(등록명 킨켈라)가 발목 인대 파열 부상으로 남은 경기 출장이 어려워져 곤혹스럽다. 기업은행으로서 킨켈라의 부상 공백 메우기가 봄배구 진출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자부도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활약이 포스트 시즌 티켓 싸움의 변수로 부상했다.

KB손해보험(승점 50)은 4위 한국전력, 5위 우리카드(이상 승점 46), 6위 OK저축은행(승점

45)에 쫓겨 불안한 3위를 지키는 가운데 V리그 데뷔를 앞둔 대체 아시아 쿼터 아밋 굴리아(등록명 아밋)에게 기대를 건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한국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24점을 뽑으며 인도가 11년 만에 한국을 꺾는 데 앞장섰던 아밋은 나경복, 임성진, 홍동혁, 윤서진이 포진한 아웃사이드 히터진에서 힘을 보탠다.

명세터 출신의 신영철 감독이 이끄는 OK저축은행은 봄배구 진출을 위해 트리트 오데이와 계약을 해지하고 일본인 세터 하마다 쇼타(등록명 쇼타)를 영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2024-2025시즌 OK저축은행의 주전 세터로 뛰었던 쇼타는 블컨트롤이 좋고 안정적인 볼배급 능력을 보여줬다. 쇼타는 외국인 주포 디미타르 디미트로프의 공격과 중앙의 속공 능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대체 아시아 쿼터 선수인 미들 블로커 무사엘 칸(등록명 무사엘·한국전력)도 V리그 입성 후 경기당 평균 10점, 세트당 블로킹 0.614개를 기록하는 등 남은 시즌에도 팀의 봄배구 진출에 힘을 보탠다. /연합뉴스

이정후·김혜성, 불붙은 방망이...WBC 기대감 ↑

이정후 4G 연속 안타 등 기록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대표팀 합류를 앞둔 코리안 바리케이드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불붙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기대감을 높였다.

반면 한국계 선수들은 부진을 이어가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대표팀 주장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주전 외야수 이정후(사진)는 26일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방포 경기에서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루타 포함 3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맹활약했다.

그는 4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펼치면서 시범경기 타율은 0.333에서 0.417(12타수 5안타)로 끌어올렸다.

첫 안타는 3-1로 앞선 3회초 공격 때 나왔다.

무사 2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제구가 흔들리던 우안 피터 스트렐레의 싱킹 패스트 볼을 받아쳐 우전 안타를 생산했다.

7-1로 달아난 4회초 공격 2사 1루 1스트라이크에서는 바뀐 왼손 투수 제우스 브로카를 상대로 우익선상 깊숙한 적시 3루타를 터뜨렸다. 이후 이정후는 대주자와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멀티플레이어 김혜성도 이날 맹활약했다.

그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2도루를 기록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500(10타수 5안타)으로 뛰었다.

그는 1회초 선두타자로 출전해 지난해 13승을 거둔 상대 팀 우안 선발 잭 갤런을 상대로 우전 안타를 쳤다.

김혜성은 곧바로 2루 도루에 성공한 뒤 돌턴 러싱의 1루 땅볼 때 3루로 진루하는 등 적극적으로 뛰었다.

그는 5회초 무사 1·2루에서 우안 투수 딜런 레이의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을 중전 적시타로 연결해 두 번째 안타를 만들었다 또 한 번 2루 도루에 성



공한 뒤 득점도 올린 그는 6-3으로 앞선 5회말 대수비로 교체됐다.

WBC 대표팀에 합류하는 한국계 선수들은 대체로 부진했다.

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홈 경기에서 3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그는 올 시즌 4차례 시범경기에서 아직 안타를 때리지 못했다.

오른손 투수 데인 더닝(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트리플A 터코마 레이니어스)은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방포 경기에서 다섯 번째 투수로 등판해 1.2이닝 동안 3피안타 2볼넷 3실점으로 흔들렸다.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은 8.10으로 치솟았다.

내야수 셰이 윌트록(휴스턴 애스트로스)은 마이애미 말린스와 원정 경기에서 4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3삼진으로 물러났다. 시범경기 타율은 0.143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별종의 별은 누구...프로당구 왕중왕전 열린다

다음달 6~15일 개최

프로당구 최강자를 가리는 '왕중왕전'이 제주도에서 막을 올린다.

프로당구협회(PBA)는 다음 달 6일부터 15일 까지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하나카드 피파탈 제주특별자치도 PBA-LPBA 월드챔피언십 2026'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월드챔피언십은 정규투어 상급 랭킹 상위 각 32명(PBA·LPBA)만이 출전하는 최고 권위

의 무대다.

우승 상금 역시 가장 커서 PBA는 2억원(총상금 4억원), LPBA는 1억원(총상금 2억원)이 걸려 있다.

이번 대회부터는 2승 시 16강에 직행하고 2패 시 탈락하는 '그룹 스위스 스테이지'를 도입하는 동시에, LPBA 예선전을 5전 3승제로 확대해 경기 변별력을 높였다.

아울러 본선 대진표는 기존 성적순 대신 조별 순위에 따라 배정돼 조별리그에서 맞붙은 상대와는

대망의 결승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남자부(PBA)에서는 이번 시즌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다니엘 산체스(스페인·웰컴저축은행)가 정점을 찍을지 기대를 모은다.

여자부(LPBA)는 김가영(하나카드)과 스톱피야비(감보디아·우리금융캐피탈)의 양강 체제가 이어질지, 혹은 다른 우승자들의 왕좌 탈환이 이루어질지 가 관전 요소다.

조별리그는 3월 6일부터 5일간 진행되며 3월 11일부터 본격적인 토너먼트가 시작된다.

결승전은 3월 15일 오후 4시(LPBA)와 오후 8시 30분(PBA)에 연이어 열린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전통과 형상회 : 혜존
: 받아 간직하여 주십시오

일시 : 2026-02-27(금) ~ 2026-03-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404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아의 봄

일시 : 2026-03-2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혜존

2026. 2. 27. ~ 3. 29.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